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2018.11.

vol.403
법원
사람들

저녁
저녁

밤에
늦게
누구나
저녁
저녁





SECTION 1 + 내일을 위한 소통나누기

- 04 **프롤로그**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
- 06 **법원 그곳**
대전가정법원
- 10 **공감**
두근두근, 시험 올림증 극복법
- 12 **감성충전 행복투어**
대전의 가을을 이야기하다

SECTION 2 +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 16 **나의 일 나의 삶 1**
우리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한다
- 18 **나의 일 나의 삶 2**
황 계장의 육아 탈출기

- 20 **테마가 있는 글 1**
나미브 사막을 달리다
- 24 **테마가 있는 글 2**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 26 **법원으로의 초대**
홈스쿨 어린이들의 대법원 견학
- 28 **우리말 이야기**
외래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 31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어떻게 취급될까?
- 32 **핫이슈**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책자' 참고하세요!
- 34 **현장 속으로**
2018 법원전시관 기획전시회 개막

CONTENTS

Supreme Court of Korea 2018. 11.
vol.403

- 36 어린이 소식지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외 1

- 38 스타일링룸
법원 새내기의 첫 만추
_윤유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실무관

SECTION 3 + 정보가 있는 공감나누기

- 44 그 사람과의 인터뷰
4차 산업혁명, 그 실체를 말하다
_공학 박사 강명구 교수

- 48 건강칼럼
겨울잠, 건강하게 자는 법

- 50 트렌드에 주목하라
차와 찻그릇 이야기

- 52 법원 NEWS 54 공감우체통 55 마음의 편지

통 권 403호

발 행 인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발 행 일 2018년 11월 1일

편 집 인 공보관 박진웅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조영

편집기획팀 김태욱, 송소현, 이경미

발 행 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3480-1456

팩 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기획 · 디자인 · 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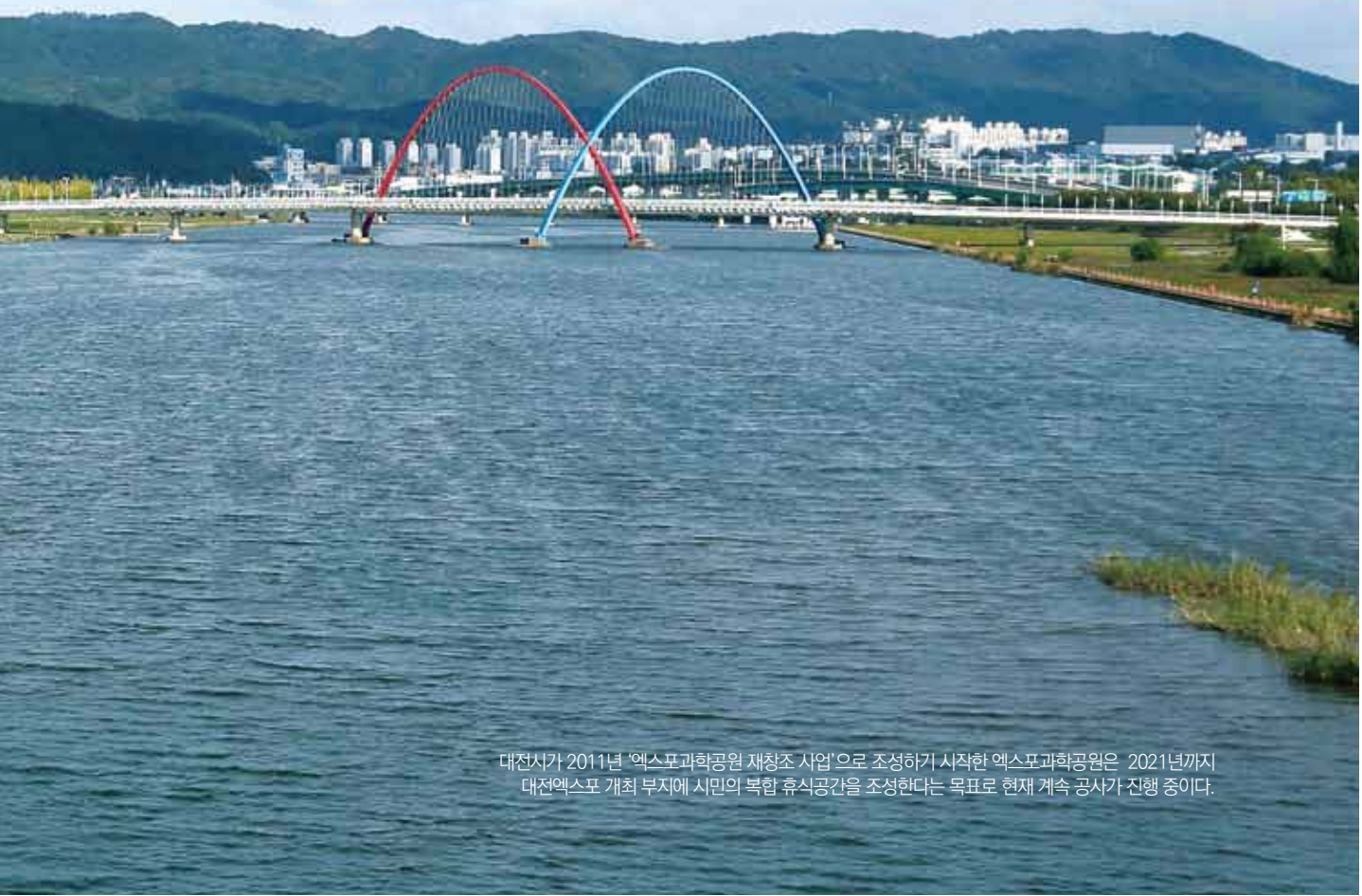
지난 1993년,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제박람회 '대전엑스포 93'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발전상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저력에 세계가 감탄했다. 대전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 첫 참가 후 100년 만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엑스포가 끝난 뒤 그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꾸며진 곳이 바로 지금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의 상징탑이자 대전시의 주요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빛탑을 비롯하여 엑스포기념관, 통일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등의 시설이 있으며 현재 한빛탑과 통일관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엑스포기념관과 대전교통문화연수원만 관람이 가능하다.

공원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하천은 갑천으로 길이 73.7km에 이른다. 주변으로 충적평야인 산내들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뿐만 아니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미술관, DMA아트센터, 둔산 선사시대 유적 등이 있어 대전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이자 교육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전시가 2011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엑스포과학공원은 2021년까지 대전엑스포 개최 부지에 시민의 복합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워 행복을 지키다

대전가정법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부지방의 중핵 도시로 모든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대전에는 대전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대전가정법원이 함께 위치해 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일임을 믿으며 소명의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대전가정법원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로 성장한 대전

한밭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었던 대전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분지지형으로 주변에 형성된 산지 사이로 유등천, 대전천, 갑천 등이 흐른다. 이들은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형성돼 있

다. 강과 그 주변의 구릉성 산지를 기반으로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를 이어온 대전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지고 1935년에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각종 관청과 시설이 설치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피난 온 임시정부가 대전에 잠시 머물렀으며, 교통의 요지로 대전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은 전쟁 직후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이북 5도의 피난민이 이곳에 정착하고 전후의 복구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전으로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되었다.

정부선과 호남선 철도 개설 등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로 성장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조성으로 한국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1998년에 정부대전청사(통계청·조달청을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이전)가 개청됨으로써 행정도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전가정법원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시작하여 2012. 3. 1. 현재의 명칭으로 새롭게 시작됐다. 관할지역으로는 1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군(지원포함: 1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시, 7개의 군)을 관할하고 있다.

보호소년과 함께 하는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

대전가정법원은 다양한 후견적 활동을 통해 보호소년에게 올바른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가족의 용화력을 회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2014년부터 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과 함께 ‘길 위 학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보여행이다. 소년들은 이를 통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고 긍정적 삶의 의지를 찾아간다. 올해는 9명의 보호소년이 6. 5.부터 6. 15.까지 10박 11일간 멘토 선생님과 1대1 짝을 맺어 240km, 700리의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11월 중에는 여자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관내 도보여행을 진행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손, 빈곤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멘토와 함께 하는 열차여행’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018. 6. 1. 코레일의 협조로 15명의 보호소년과 소년담당 판사들이 부산을 여행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8. 11.경에는 여수 지역을 견학할 예정이다.



관할 지역의 지역민이 각자의 가정 속에서 건강한 행복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대전가정법원.

다문화가정 정착 위한 다각적 복지·후견사업

대전 및 관내 지원은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위기가정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복지·후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8. 9. 13.에는 '다문화가족 초청 오픈 코트' 행사로 대전 다문화가족 25명을 초청하여 법원을 소개하고 청사견학, 판사와의 대화, 다과행사를 진행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비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절차를 안내하고, 법의 보호가 사회적 소수계층에도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직원들에게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과 배려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대전가정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사과에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관은 다문화가족이 당사자인 사건이 접수되면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에서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혼절차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안내 교육 시 5개 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의 자막본 동영상을 제공하고 가사과에는 다국어로 된 소송구조 안내, 쉬운 재판용어 가이드를 비치하고 있다.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등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대전가정법원은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 개선 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가사과와 충무과 분실에 장애인 지원관 각 1명씩을 지정하여, 장애인의 활동 보조 및 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법원 입구에 장애인용 휠체어를, 접수계에 휴대용 독서확대기와 음성증폭기를 각각 비치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가정법원의 민원인을 위한 배려와 애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전가정법원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 '사랑나눔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점심시간, 장애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대전성모의집'을 방문하여 배식, 식기세척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추석·설 명절 등에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직원들의 이러한 나눔과 배려는 직원 스스로의 직장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을 터, 대전가정법원은 '한 발문화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행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대전예술의 전당 등에서 진행되는 연극, 오페라, 클래식 연주 등을 관람하며 서로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업무의 피로를 풀고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지난 10. 25.에는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함께 오페라 '라보엠'을 관람하기도 하는 등 직장에서는 신뢰도 깊은 동료로, 법원 밖에서는 친구 같은 친밀함으로 함께 하며 대전가정법원의 화합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



(왼쪽부터)길 위 학교 수료식, 한발문화공감 공연 관람, 사랑나눔회 봉사활동.

“ 대전·세종·충남 가정에 깨소금 역할을 기대해 주세요 ”



한숙희 대전가정법원장

대전가정법원은 2012. 3. 1.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어 대전·세종·충남 지역 내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승격과 함께 신설된 관내 지원과 함께 '본·지원 교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본·지원 간 업무의 통일성, 사법서비스 균질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가정법원의 가사전문법관 및 전문가사조사관이 소규모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파탄 직전의 가정과 위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2018. 6. 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과 함께 '길 위 학교'를 하였습니다. 9명의 보호소년들은 10박 11일간 멘토 선생님과 1:1 짝을 맺어 240km, 700리의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1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완주한 보호소년들은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훌륭한 청년·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아동을 위한 후견·복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회복 또는 이혼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덕도덕 부부캠프'를 진행하고, '도란도란 가족캠프'는 학대 경험을 가진 아동과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부모 및 그 가족들이 심층 가족집단치료 프로그램 및 집단활동을 통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017년부터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협의회'를 열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논의하고,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도 가정법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대전가정법원은 2018. 5.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내 지역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법률적 소양을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토대이며 사회를 이루는 근원이지만, 사회적 변화 앞에서 가장 쉽게 충격을 받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1인 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형태, 노령인구의 증가 등은 가정법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이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사려 깊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혼 및 이혼 후 가정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면접교섭 및 적절한 양육비의 지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보호소년들이 비행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붙잡아주는, 대전·세종·충남 가정의 깨소금이 되도록 대전가정법원에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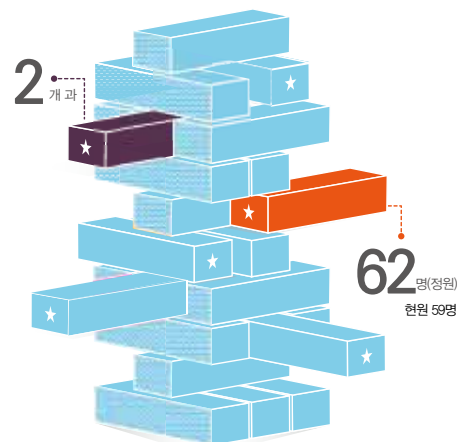
대전가정법원의 역사

- 2007. 2. 1.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설치
- 2012. 3. 1. 대전가정법원 및 관내지원 설치

대전가정법원의 관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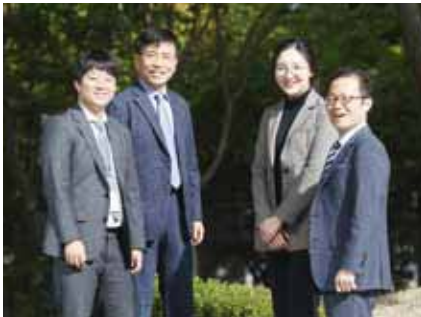


대전가정법원의 조직구성



긴장감 넘치는 '그날'의 기억

두근두근, 시험 울렁증 극복법



(왼쪽부터)

강성민 실무관, 김승주 담당관, 이연서 실무관, 김성식 판사

인생을 살면서 학창시절 중간·기말 시험을 비롯해 각종 자격시험, 입사시험 등을 치러야 할 순간이 온다. 인생의 통과 의례처럼 시험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으며 일정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긴장감과 압박은 만만치가 않다. 11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긴장감 극복 노하우를 함께 나눠본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고 하여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봤어요. 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시험 치르는 시간처럼 느껴지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걱정도 되고요. 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하신데요? 그 와중에 합격하시다니요. 하하. 저는 시험에 관한 에피소드라면 참 많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경험이 많은데 오늘은 제일 약한 이야기로 풀어놓으려고요.



하하하! 호호~

저는 2017년도에 법원직 공채 시험을 보고 올해 2월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가장 근자에 큰 시험을 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아주 딱딱딱한 경험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 기대~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었길래!

제가 판사 시험을 보던 때는 사법고시를 치르던 시절이었죠. 때는 바야흐로 1998년 2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날은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있던 날, 저는 1년에 꼭 한 번밖에 없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그럴겠네요. 실무관님은 공채 시험 한 번에 합격하셨죠. 시험 당일에도 긴장 안 하고 가분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 분위기가 벌써부터 으스스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긴장을 잘 하는 터라, 그날도 청심환을 먹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너무 졸렸죠. 1교시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끝까지 참고 시험은 다 치르고 왔지만 결과가 뻔해 답도 맞춰보지 않았어요.



점심식사를 위해 간단한 도시락과 물 정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전 시험을 치르고 막간을 이용해 공부를 하느라 도시락은 못 먹고 물만 마셨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렇게 오후 시험이 다시 시작됐는데, 시험 1시간 반 정도를 남겨두고 '그분'이 오셨어요. 시험 날의 복병, 다들 아시죠?





아, 화장실! 어머, 어머, 어떻게 ㅠ ㅠ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으나 나가려면 답안지를 제출한 후 나갈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 감독자가 봉투 하나를 주며 저를 교실 뒤쪽 휴지통으로 보내더군요. 결국 휴지통에 일을 보는데, 아불씨!



헉, 왜요. 판사님! 대체 무슨 일이...?



휴지통 아래가 깨져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은 얘기 안 해도 대략 상상이 가시죠? 저는 자리에 돌아와 그 와중에 시험을 치렀고 그해 1차 시험에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이라 그 부담감은 훨씬 큰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더 내가 지향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관문인데 시험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락이나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라도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하하. 저희 학교는 성적표를 집에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성적표가 올 때쯤이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성적표를 받아서 부모님 도장을 찍고 학교에 가져가기도 했죠.



하하하.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 전 우리 막내아들 일이 생각나네요.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70'이 '100'으로 엉성하게 고쳐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70'인데! 하하. 크게 혼내진 않고 알아듣게 얘기했죠. 실무관님은 그때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엔 아셨지만, 크게 혼내진 않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기대 안 한다고요. 하하하!



하하! 아이고 배야~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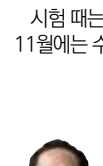
시험에 있어 결과를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평소보다 시험에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부러워요. 저는 평소보다 시험에 약하거든요.



혹시 평소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지!



아, 그럴지도.... 하하하~ 예리하셔!



시험 때는 긴장되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마련이죠. 11월에는 수능이 있는데 많이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관련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씩 나눠볼까요?



네. 보통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서 잠을 푹 잘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때의 70~80% 정도의 신체 회복이 이뤄진다고 해요. 잠드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험이나 교육 때 중간 시간에 잠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게 그렇게 개운하더라고요. 만약 머리가 맑지 않다면 잠시라도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저와 판사님은 학력고사 세대이니 여기 수능 세대가 한 말씀 해주시죠.



찍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공인된 시험의 경우 5지선다형 정답의 분포도를 18%~22% 내에서 맞춘다고 해요.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나머지 정답들을 분석해서 제일 적게 나온 정답으로 찍도록 하면 확률이 높죠.



나머지 정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하~



하하. 저 시험 보러 갈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들도록 합시다." 수험생 여러분도 이 말에 위안을 받고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수험생 모두 수능 대박, 힘내세요!!

대전의 가을을 이야기하다



대전의 명물, 대동하늘공원의 풍차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 천지사방에 드리운
형형색색의 단풍도 하루가 다르게 물려오는
찬 기운에 시나브로 제 빛을 잃어버리는
요즘이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대전, 과학과
생태, 역사, 자연이 고르게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도시다. 들이 넓고 커서 예부터 '한밭'
으로 불렸으며 식수원인 대청호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그 운택함을 자랑하는 곳, 대전
으로 함께 떠나보자.

글·사진 김초록(여행작가)

살아있는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찾아서

대전 여행은 단재(丹齋) 신채호(1880~1936) 선생 생가지에서 시작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남긴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신민회 가입, 국채보상
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독립 정신을 일깨웠다. 중국 상해로 건너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의원과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
았고 역사학에도 조예가 깊어 한말 『대한매일신보』에 글을 싣기도
했고, 『소년』에 「국사사론」을 연재했는가 하면 국난을 극복한 최영,
이순신, 을지문덕 장군 등 민족 영웅에 관한 전기도 썼다. 1936년
여순감옥에서 옥사하기까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알리는 데 헌신
했다. 생가터에는 옛 모습을 살린 생가와 유허비 및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단재 선생 생가지에서 금산땅을 가로질러 찾아간 장태산 자연휴양



림, 이국적인 경관을 간직한 대전의 허파 같은 곳이다. 1970년대부터 가꾸기 시작한 숲은 뽕뽕하게 자라 맑은 공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 특히 단풍이 들기 시작한 메타세쿼이아 숲은 휴양림의 산 역사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 수련장, 교과서식물원, 생태연못, 암석식물원,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고 인공림과 자연림에 둘러싸인 12km의 숲속 산책로는 피톤치드를 한껏 내뿜는다. 휴양림을 따라 작은 계곡이 있고 장태산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다워도 설치돼 있다. 장태산을 빠져나와 대전 시가지 쪽으로 가다 뿌리공원에 들러본다. 이곳에는 족보박물관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224개 성씨의 유래가 기록된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 자신의 성씨는 물론 다른 성씨의 역사와 시조, 유명 인물을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과거와 현대가 만나는 대전의 중심부

중구(동구 포함)는 근현대 1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전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이다.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옛 충남도청 건물은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후, 일부 공간을 대전의 역사와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로 대전근현대 전시관이다. 외벽이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옛 충남도청 건물은 대전에 남아 있는 근대 관청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내부로 들어가면 요철(凹凸) 모양으로 파내어 장식한 벽면과 곡선으로 처리한 기둥, 1930년대 유행했다는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 기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옛)대전여중강당, (옛)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옛)대전부청사, (옛)산업은행 대전지점, (옛)조흥은행 대전지점, (옛)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옛)대전형무소 건물 등도 고색창연하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세운 (옛)대전형무소는 안창호, 여운형, 박헌영, 김창숙 등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애국지사, 양민들이 수감되고 학살된 역사적인 장소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땐 독재정권 타도를 외친 무수한 시민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공원으로 변모한 형무소터에는 건물은 간 곳 없고 망루, 우물, 왕버들 나무만이 남아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중구 한복판인 중앙로역 주변 '오늘정이 문화의 거리'는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다. 세련된 차림의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유명 브랜드와 음식점, 백화점, 재래시장,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빵집,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성당(대흥동),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다리(목척교)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중구에서 동구로 건너가면 대전에서 가장

도보 코스

(총 3.2km, 약 45분 소요)

대전가정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샘머리공원

한밭수목원

이응노미술관(시립미술관)

엑스포다리(갑천)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위부터)신재호 선생의 생가,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메타세쿼이아숲, 뿌리공원의 성씨 조형물.



(위에서부터) 단아하고 미려한 동춘당, 송시열이 쓴 동춘당 현판, 충청지역 살림집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동춘당 고택.

고지대인 대동벽화마을이 있다.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로 2000년대까지도 낙후된 마을이었으나 도심 재개발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동여지도와 하늘공원(전망대)의 상징인 풍차 등을 볼 수 있고 특히 일몰과 야경은 환상적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두 인물

대동마을에서 대청호 방면 약 6km(15분) 거리에는 단아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동춘당(同春堂 보물 제209호)이 있다. 조선 효종 때 대사헌,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선생이 자신의 호를 따서 지었다. ‘늘 봄과 같다’는 뜻의 이 건물은 구조 하나하나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집 처마 밑에 걸린 현판은 우암(尤庵) 송시열이 썼다고 전해진다. 동춘당 옆에 들어선 고택은 송준길의 5대조 송요년(1429~1499)이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전 충청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동춘당 오른쪽 나지막한 둔덕에는 송준길의 둘째 손자인 송병하(1646~1697) 선생이 분가해 살던 옛집(송용역 가옥)이 있다. 이 집은 그 후 송병하의 아들 소대헌 송요화(1682~1764)와 그의 부인 호연재 김 씨(1681~1722)가 살았는데 나중에 ‘소대헌·호연재 고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호연재 김씨는 17~18세기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뛰어난 한시를 많이 남겼다. 동춘당 현판을 쓴 송시열의 자취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가양동의 우암사적공원에 가면 더 자세하게 접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선생은 인생 후반기에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닦았다. 그는 세 살 때에 스스로 문자를 터득했고 7세에 형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이를 받아 썼을 만큼 총명했다고 한다. 공원에는 송시열이 제자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익혔던 남간정사(南澗精



(왼쪽 페이지 좌측부터)대동하늘공원에서 본 대전시가지, 송시열이 제자들을 가르친 남간정사, 계족산 황토 맨발길, 대청댐 물문화관, 유성온천지구의 족욕체험장, 유성구 구죽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채묵밥.

숨)를 비롯해 송시열 선생의 문집과 연보 등이 보관된 장판각, 연못을 둔 덕포루(정자), 사당(남간사), 우암자료실 등이 있다. 개울물이 졸졸 흘러 둥근 연못에 닿는 모습이 아름다운 남간정사는 중국 송대의 유학자인 주자(朱子)의 시 ‘운곡남간(雲谷南澗)’에서 따왔다고 한다.

힐링과 휴식이 있는 산과 호수

동춘당 뒤편은 계족산(鷄足山)과 이어져 있다. 이름 그대로 산의 모양이 닭의 다리를 닮았다는 계족산은 산세가 완만하고 유순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대전의 명산이다. 대덕구와 동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사방으로 뻗은 능선들이 닭발 같은 형상이다.

코스는 장동산립욕장에서 시작해 능선을 한 바퀴 도는 게 일반적이다. 경부고속도로 아래, 고성 이씨 집성촌인 비래골에서 출발해 옥류각~절고개(황톳길 갈림길)~계족산성~황톳길~장동산립욕장 코스도 무난하다. 산 초입부터 뽕가 예사롭지 않다. 등산로 한쪽으로 깔린 황토 맨발길 때문이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황톳길은 감촉이 부드럽고 상쾌하다.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기분을 좋게 한다. 황토가 내뿜는 원적외선의 효능을 맛보기 위해 외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산 정상 언저리에는 백제시대에 쌓은 계족산성이 있다. 산성에 서면 동쪽으로는 충북 옥천만인 대청호가 북동쪽으로는 충북 보은땅이 아스라하다.

산행을 마치고 대청호의 푸른 물길을 따라가는 ‘대청호

오백리길’을 걸어보자. 자연을 느끼고 건강도 챙기는 명품 힐링길이다. 대전 신탄진 대청댐에서 출발해 충북 옥천과 보은, 청원을 잇는 250km, 전체 21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호수 경치와 오지마을을 감상하며 걷는 호반길(마을길)은 가을 낭만을 흠뻑 느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대청호는 주변에 잔디공원과 자연생태관, 캠핑장, 대청댐 물문화관, 기념관, 전망대 등이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휴식을 제공한다. 호수를 지그재그로 도는 드라이브 코스도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유성온천도 지척이다. 이곳의 온천수는 지하 50~400m의 화강암 단층대에서 분출된다. 27~56℃ 정도의 약알칼리성 단순천으로 60여 종의 각종 성분이 함유돼 있다. 유성온천지구 한쪽에 들어선 족욕체험장도 인기다. 따끈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면 피로가 사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온천욕을 마치고 대전 6미(六味)의 하나인 도토리묵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대전의 대표 음식인 구죽마을 도토리묵은 자연에서 얻은 무공해 웰빙 식품으로 몸속의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피가 맑아지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성구 관평동 구죽마을에는 채묵밥·무침·묵전 등 다양한 묵 요리를 내는 10여 개의 전문 음식점이 있으며, 이 중 채묵밥은 채 썬 묵에 멸치와 다시마, 무 등을 넣은 후 끓인 국물을 붓고 김치, 김 가루, 깨 등을 올려 내놓는데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

우리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한다

글 백중현(인천가정법원 총무과 실무관)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표현이다

누구나 아내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여보, 사랑해”

부부생활에서 꼭 필요한 말이지만 쉽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 나 또한 아내에게 언제 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아내도 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 평소 말이 없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날만큼은 꼭 이 말을 아내에게 해주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을 들뜨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 ‘왜 나는 평소에 이런 말을 아내에게 자주 하지 못했을까?’ 항상 마음속에는 있는데... 문득 예전에 아내가 위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나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오빠, 나... 정말 고마워...”

“뭐가...”

“그냥...”

아마도 그때 아내는 나한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질 못한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사랑’ 아내를 사랑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 말문이 막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를 잘 기억해서 그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하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아내의 이런 모습들 때문이다.

하나, 든든하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항상 일을 해결해준다.

요즘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벽에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나는 한쪽 벽만 칠하고 힘이 들어서 앉자 있는데 아내는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온 집안 벽을 혼자 페인트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싱크대 수리며 신발장 고치는 일도 푹푹푹푹 잘도 고친다. 만약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하면 벌써 그 일들은 이미 다 되어있다.

둘, 사교성이 좋다.

학교 선생님이거나 그런지 사람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좀 일방적이지만 사람들을 잘 사귀고 친하게 지낸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유독 선생님들이 많이 산다. ‘왜 그럴

까?’ 생각해보니 선생님 한 명이 아파트가 교육여건이 좋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전해진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아내다. 그래서 그런지 옆집은 수학 선생님 아랫집은 일본어 선생님 윗집은 양호선생님... 다른 단지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살고 있어 아이들 교육은 문제없다.

셋,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아내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 예전에는 플루트, 장구도 배웠다. 그리고 피아노며 가야금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 지금은 벨리댄스를 배우고 있다. 지도자 자격증까지 따서 학교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몸이 열 개야?”

“대단해 정말...”

이런 말에도 아내는 오늘도 무언가를 배우러 집을 나선다.

넷, 생활력이 강하다

적은 월급으로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힘이 든다. 아이가 두 명인 집은 더할 것이다. 아내는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사질 않는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고쳐 다시 쓰거나 쓰던 물건을 다시 팔아서 좀 더 나은 물건을 구매한다. 한 번은 너무 오래된 청바지를 입고 있길래,

“옷 한 벌 사 입어! 내가 사줘?”

그랬더니 그다음 날인가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청바지가 반바지가 되어 옷장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생일 선물로 옷을 사준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다음번 생일 날은 꼭 사줘야겠다.

다섯, 잘 기억한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하고 물으면 “우리 큰아들이 처음으로 ‘아빠’ 하고 말한 날이잖아...”

아내는 늘 기억하고 메모하려고 한다. 달력을 보면 시시콜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중요한 일정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뭘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하고 생각되는 사소한 일들도 잘 기억한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신혼 때 살던 집 근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섯, 가족이 우선이다.

아내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 예전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것이 아내의 헌신이고 사랑의 표현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가족을 위한 헌신은 꼭 내 아내의 일이 아니라 많은 아내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일곱, 가정적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같이 어울려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늘 가정을 위해 염마로서, 아내로서 있어 준 까닭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이 외에도 아주 많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여서 더 행복하다. 우리는 아내의 어떤 모습과 행동을 봤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표현이다.”





황 계장의 육아 탈출기

글 황경규(대구고등법원 총무과 행정관)

〈법원사람들〉을 보면 육아와 관련한 글이 실리곤 한다. 대부분 육아의 기쁨이나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육아 탈출기(?)이다. 그것도 세 번 혹은 네 번에 걸친….



#1, 첫 번째 탈출기

나의 첫 발령지는 서울고등법원 관리과이다. 담당업무는 구내식당 관리업무였다. 조리사 분들이 식사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구내식당을 둘러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조리실 안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 냄새가 몸에 배곤 했는데 첫 발령 동기들이 ‘걸어 다니는 메뉴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여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과 집, 또는 술집을 오가던 중 2007년 4월의 마지막 날에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고향행(대구)을 외쳤다. 대구가 고향인 아내는 일가친척과 친구 하나 없이 혼자 독박육아에 시달려야 했고, 신랑은 존재하되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근무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였는데 업무도 많았고, 저녁 회식을 핑계로 늦어지는 날도 많았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돌도 지나지 않은 첫째를 안고 혼자라도 내려가겠다는 엄포에 결국 대구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안양 평촌에 살았는데, 전세 기간 만료 문제로 내가 먼저 내려와 처가에서 3달 정도 살았고, 아내는 신랑의 부재로 다소 편안한 독박육아를 했다는 후문이다.

#2, 두 번째 탈출기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서부지원을 제외한 7개의 지원이 있는데, 실무관 때 한 번, 계장 때 한 번 지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이 있다. 2009. 7. 11.에 경주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때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었고 나름 출퇴근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아내에게 어필했지만, 임신 중인 몸으로 폐쟁이 세 살 짜리를 온종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아내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출퇴근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날이 많았고, 2010년 3월에 둘째 '지훈이'가 태어나고 가끔 출·퇴근을 하긴 했지만, 업무 또는 회식 등을 이유로 독신자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날도 제법 되었다. 두 번째 탈출은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3, 세 번째 탈출기

2014년 1월에 계장이 되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지원 근무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2016년 1월에 포항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삼대가 턱을 쌓아야 할까 말까 한 주말부부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나의 포항지원 발령은 아내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주(酒)님께서 보우하사(?) 우리 부부는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 2015년 5월의 어느 봄날에 셋째 '지율'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다. 외벌이 에다 아이 셋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던 우리 부부는 잠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다소 비과학적인 옛말을 위안 삼아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포항지원은 여러 여건상 출·퇴근이 힘든 지역이라 독신자 숙소에 등지를 틀 수 밖에 없었고, 아내는 다시 독박육아라는 고난의 길을 가야 했다.

#4, 네 번째 탈출기

세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육아 탈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금 대구고등법원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은 편이다. 정기감사, 수시감사, 기획감사, 을지연습평가, 각종 워크숍 등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고, 여기에 회식에 개인적인 모임까지 더해지니 또 육아는 오롯이 아내의 몫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다시 포항지원으로 가라고 한다. 집에 없을 때가 훨씬 나았고, 큰아들(필자를 지칭하는 말임) 케어가 제일 힘들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다시 포항지원으로 가는 꿈을 꾸 적도 있다. (T.T)

아내는 여전히 불만이다. 아이들을 돌봐야(care) 하는데 그냥 보고만(see) 있다고... 그런 아내에게 나는 조부모의 재력이 없으니 아빠의 무관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던진다.

아내는 워킹맘이다. 아내의 헌신과 사랑으로 삼둥이들은 아빠의 무관심(?) 속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네 번째 탈출이 끝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그리고 다섯 번째 탈출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Racing the Planet

나미브 사막을 달린다

글 빈태욱(청주지방법원 판사)

사진 출처 WWW.RACINGTHEPLANET.COM / Mike Sakas



나미브 사막을 가기까지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대체 사막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비싼 참가비(항공료, 체재비를 제외하고 참가비만 3,800달러)를 기꺼이 내고서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며 10kg이 넘는 가방을 메고서 달리기만 하는 걸까?’. 처음의 호기심은 몇 권의 사막마라톤에 관한 책과 이미 사막을 다녀온 블로거들의 참가기를 읽으면서 점차 폭고 싶다는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양해하에 2017. 12. 참가보증금을 입금하고서 사막마라톤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막마라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먹을 음식과 장비를 지고서 250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은 마실 물과 텐트뿐입니다. 세계에서 열리는 사막마라톤 대회는 많지만, 그 중 어드벤처 레이스 회사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집트 정세가 불안해진 이후에 아프리카 남부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미브 사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올해는 몽골 고비에서 열렸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남극 마라톤(남극마라톤은 위 3개 사막마라톤 중 2개 이상 대회를 완주한 이들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등 ‘4 Deserts 대회’가 유명합니다. 4개 대회를 모두 완주하고 싶지만,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사하라 레이스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신청 후 사하라 레이스가 열리는 2018. 5. 초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역시 받아놓은 날짜는 빨리 돌아오나 봅니다. 10kg의 장비를 지고서 달려야 했기에 출퇴근 시에 가방에 일부러 물건을 넣어서 달리고, 각종 마라톤 대회와 57km 거리의 트레일러닝(도로가 아닌 산, 들, 시골길 등 불규칙한 노면을 달리는 대회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제일 유명한 대회로는 알프스에서 매년 열리는 170km 거리의 몽블랑 대회(UTMB, Ultra Trail de Mont Blanc)가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며 기초 체력을 키웠습니다. 올해 형사단독재판 업무를 맡게 되어 10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이미 참가비를 지불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매주 수, 금요일 중 일 재판을 하며 대회 참가일을 기다렸습니다.

대회 출발 전(2018. 4. 25. ~ 4. 28.)

사막마라톤 자체도 힘들지만, 대회출발 장소인 나미브 사막까지 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긴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24시간 만에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

다. 저는 장거리 비행을 즐기는 편이라 6번의 식사와 여러 편의 영화를 보면서 비교적 편하게 도착했습니다. 현지 적응을 위해 빈트후크에서 이틀을 보낸 후 대회 본부가 차려진 스와코프몬트까지 500km를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스와코프몬트에서 대회주최 측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침낭, 나침반, 헤드 램프, 후미등, 손 세정제, 물집 제거 키트, 상의 4벌, 하의 2벌, 서바이벌 블랭킷, 방수 가방 등 필수 장비만도 20여 가지가 넘고, 일주일 치 사막에서의 식량은 의료진이 일일이 열량을 체크하고, 기타 장비도 모두 일일이 가방을 풀어헤쳐서 확인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치 식량을 요일별로 지퍼팩에 넣고 열량표를 작성해가서 한 번에 통과했지만, 시리얼 바만 가져오신 한 참가자는 2시간 동안 장비검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00여 명으로 그중 한국 참가자가 16명으로 참가국 중 제일 많았습니다(저는 한국 참가자 중 나이순으로 4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2018. 4. 29. 장비 검사를 마친 후 스와코프몬트에서 또다시 200km를 버스를 타고 대회 출발 장소인 나미브 사막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돌과 모래만 있는 황량한 광경을 마주하고 보니 제가 사막에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대회 출발지인 곳에 도착하니 A형 텐트가 일렬로 쳐져 있고, 원주민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참가자들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텐트를 확인한 후 짐을 풀고 사막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제가 묵었던 텐트에는 호주인 회계사, 캐나다인 경찰 부부(두 분은 2017. 아타카마 사막마라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올해 또 나미브 사막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중년의 간호사, 아일랜드 출신 은행가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Race day(2018. 4. 29. ~ 5. 4.)

Stage 1(43km)

어디서든 잘 자는 편이라 새벽에 추웠지만 깨지도 않고 잘 잤습니다. 제 옆에서 잠을 잤던 참가자는 저와 아일랜드 은행가의 코 고는 소리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주최 측에서 주는 뜨거운 물을 부어 전투식량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짬뽕라면밥, 점심 행동식으로 육포나 파워젤, 라면을 준비했는데, 귀국하고 나서 한동안은 짬뽕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개인 정비를 한 후 출발 시간인 8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회 출발 전 전통복장을 한 나미비아 원주민들이 노래와 춤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 저도 참가자들과 함께 막춤을 추면서 축제 분위기인 대회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매년 대회 참가 때처럼 무사히 즐겁게 완주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출발 깃발이 올라가고 100~200m 간격의 코스 리본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11kg의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사막에 있다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고통도 모른 채 거친 사막을 달렸습니다(사막마라톤이라고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막만 생각하기 쉬운데, 모래사막은 세계전체 사막의 1/4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승점(Finish)이 노출되면 참가자들이 코스를 이탈해 질러올 수 있기에 대부분의 결승점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마지막까지 어디가 결승점인지 찾게 되는데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언덕 뒤졌지만, 아니었고, 한참을 더 달려 북소리가 나는 분지 아래에 은폐되어 있던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Stage 2(40km)

어제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43km 달려서인지 자고 나서도 어깨가 무척 아프고, 필수장비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졌습니다(둘째 날부터 이러면 큰일인데...). 그러나 대회



출발을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러너들과 함께 어느새 호흡을 고르며 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대자연이 허락해준 아름다운 광경을 모래언덕위에서 감상하며 고통스럽지만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은 결승점이 언덕 위라 멀리서부터 결승점을 보며 위안을 삼으며 달렸습니다.

Stage 3(42km)

‘셋째 날 코스를 누가 설계했을까?’ 하는 생각을 달리는 내내 했습니다. 이날은 대서양변의 해안선을 무려 30km나 달려야 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은 저를 지치게 했지만, 물개, 난파된 선박, 파도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달렸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체력이 방전되어 아껴두었던 라면을 생으로 먹으면서 달렸는데, 태어나서 먹어 본 라면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벗어나니 이제는 10km의 끝이 보이지 않는 자갈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목 빠는 것을 주의하면서 천천히 걷거나 달렸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힘들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Stage 4(Long day, 83km)

사막마라톤 대회에는 꼭 80km가 넘는 ‘Long da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막마라톤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합니다. ‘Long day’ 날씨가 반쳐 주기를 바랐지만 사막마라톤답게 출발과 동시에 40도를 웃도는 날씨였습니다. 출발과 동시

에 참가자들은 실력대로 흩어져 서로 보이지도 않고 오직 혼자서 묵묵히 83km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속보로 걷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뛰는 것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낮에는 10km마다 있는 CP(Check Point)에서 물을 충분히 보급하고, 유일한 그늘인 CP 텐트에서 열을 식히며 속보로 걸었습니다. 폭염과 건조한 공기가 저를 지치게 하고 괴롭혔지만, 사막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오가 되었을 무렵 30km 지점 CP에서 자원봉사자가 건네준 콜라 한 캔(주최 측에서 유일하게 Long day 구간에 콜라 한 캔을 보급해줍니다)은 단숨에 마셔버렸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지금도 콜라를 마실 때면 가끔 그 CP와 자원봉사자, 그때 마셨던 콜라의 맛이 생각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낮에 걸으며 보충해 두었던 체력으로 한 명, 두 명 러너들을 추월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절전 모드로 해놓았던 휴대폰을 해제시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들으며 사막을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왼편으로 보이던 석양, 해가 지고 난 뒤에 쏟아질 듯 총총히 머리 위에서 빛나던 별들. 제가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까지 와서 보고자 했던 게 ‘이것이였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함께 지내면서 미안하거나 후회되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진 다음에는 앞에 있는 러너의 점멸등을 등대 삼아 달렸습니다. 마지막 CP를 지나 몇 명의 러너들을 더 추월한 후 똥똥 반가운 복소리를 들으며 길었던 ‘Long day’를 마쳤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쉬었는데(‘Long day’ 이전에는 제가 한국 참가자 중 3등 정도였는데 ‘Long day’에 1등이 되어 위 순위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까지 27시간에 걸쳐 완주한 한국인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중간에 알바(중간에 길을 잃어 해매는 경우를 일컫는 트레일러너 사이의 은어)도 하고, 자갈 무리가 따라와서 무척 긴장하면서 달렸다고 합니다.

'Long day' 다음 날은 하루 동안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고, 무거운 책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다들 그늘 텐트 아래에 모여서 각자 사막에 오게 된 동기나 목표, 대회가 끝나면 뭘 먹고 싶은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푹 쉬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아침, 저녁 짬뽕 라면밥, 점심은 라면입니다). 지금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아프리카 사막 마라톤만 7번 참가했다는 75세의 이탈리아 할아버지였는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인생을 즐기는 것이며, 자신은 지금도 이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짧고도 달콤했던 하루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내일부터 다시 사막을 달려야 하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Stage 5(Dune day, 42km)

'Long day' 후 하루를 쉬어서인지 체력이 많이 회복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10km 계속 이어진 모래언덕을 넘고 넘어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막마라톤에 참가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려 본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본 풍경들은 앞만 보고 달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고, 나미브 사막의 진면목을 이날 보았습니다. 결승점이 해안선 가까운 곳이었는데, 샤워시설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찬물이지만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Stage 6(10km)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러너들은 이날 아침에 6일 동안 매달고 다니던 침낭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가방도 한 층 가벼워져 오늘은 좀 달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날은 10km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모래언덕을 넘어 소금 성분이 섞인 사막을 지나서 다시 작은 모래언덕을 넘어서자 길고 길었던 나미브 레이스의 결승점이 보였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점프를 하면서 나미브 사막 마라톤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결승점에서 7일간 동고동락한 참가자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막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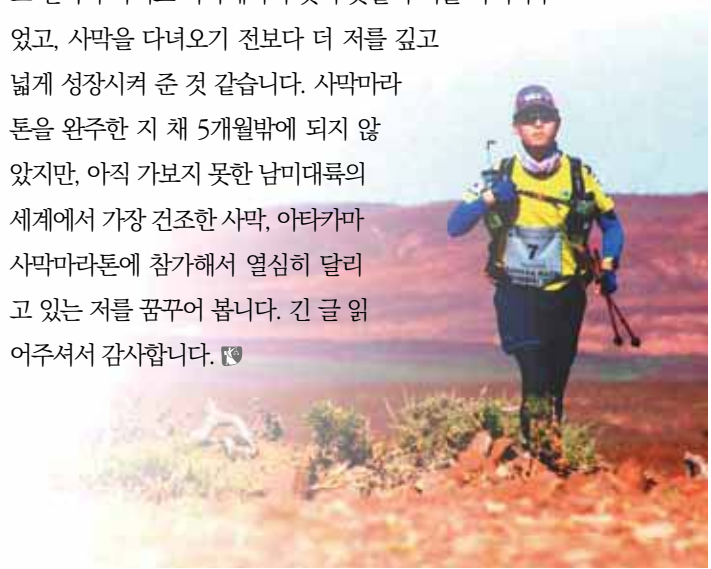
완주를 자축했습니다.

대회 이후(총 257km, 37:07:30 Rank 16/88)

대회를 마친 후 다시 시상식과 축하파티가 열리는 스와코프문트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간 물티슈로 얼굴만 대충 씻고서 지냈는데 호텔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일상의 소중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두 번 감았는데도 계속 모래가 나왔습니다. 파티에서 깨끗하게 차려 입은 참가자들을 보니 사막에서의 추레한 모습과 달리 새로웠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해 준 와인과 맥주는 금세 동이 나버렸고, 한국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며 무사 완주를 자축했습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은 레이스에 집중하다 보니 참가자들과 소통하거나 아름다운 사막의 풍경을 더 즐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단 사막마라톤 레이스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쉬운 점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약해둔 버스로 스와코프문트에서 빈트후크로, 빈트후크 공항에서 아디스아바바, 홍콩을 경유하는 거의 하루에 가까운 이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섯 번의 식사와 몇 편의 영화를 보고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가끔은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재지 않고 무턱대고 했던 그 선택이 나미브 사막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다주었고, 사막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저를 깊고 넓게 성장시켜 준 것 같습니다. 사막마라톤을 완주한 지 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남미대륙의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마라톤에 참가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저를 꿈꾸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츨라프 광장〉

저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동안 예전부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프라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프라하를 그저 동화같이 아름다운 도시 정도로만 느끼고 올 것이 아니라 체코의 역사와 그 도시에 얹힌 사연들을 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나라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Ruexp 프라하팀’이 쓴 『프라하 이야기』라는 책을 구매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Ruexp 팀은 프라하에서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예약 없이 모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 투어를 해주고 투어가 끝난 후 정해진 금액 없이 팁으로 가이드 투어 비용을 받는, 이른바 ‘팁투어’를 오랜 시간 진행해온 분들입니다. 『프라하 이야기』를 읽고 직접 팁투어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곳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프라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몰과 함께 야사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카를교, 중세도시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지만 아직도 체코의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인 프라하성, 보자마자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당하는 건축 기간만 천년이 걸렸다는 성비투스성당 등... 모두 다 제 가슴 속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들로 담겨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체코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난 현장이었던 바츨라프 광장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10세기 보헤미아 왕국의 성군, 성 바츨라프 왕의 이름을 딴 바츨라프 광장에는 그가 말 위에 앉아서 깃발을 들고 있는 기마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광화문 앞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광장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체코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글 이선용(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총무과 실무관)

의 근대사 역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팁투어와 책을 통해 알게 된, 바츨라프 광장과 관련 있는 체코의 근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918년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체코는 보헤미아 왕국 시절 400년 가까이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살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패망과 함께 끝이 나면서, 보헤미아는 1918년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다른 민족의 탄압 속에서 살아왔던 슬라브족에게 드디어 독립된 나라가 생긴 기쁘고 희망찬 날, 바츨라프 광장의 기마상 앞에서 건국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18년부터 1939년까지 20년간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 나치 독일의 식민 지배 및 전후 소련의 개입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서 절대적인 통치자로 올라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독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로부터 7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결국 독일의 패망과 함께 끔찍한 전쟁이 끝났지만,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전 유럽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크게 반으로 나누어 서쪽은 연합군이, 동쪽은 소련군이 전후 처리를 맡기로 하였고, 동쪽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공산당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3. 1968년, 소련군의 무력 침공과 프라하의 봄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소련은 1968년 8월 20일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의 탱크를 이끌고 바츨라프 광장에 무력 침공합니다. 이에 프라하의 시민들은 손을 마주 잡고 인간 벽을 만들어 비폭력으로 대항했지만 결국 발포 명령이 떨어졌고 시위대는 처참하게 진압당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입니다. 프라하의 봄은 프라하의 민주화, 자유화, 의식이 깨어남 등을 만물이 다시 생동한다는 뜻으로 '봄'이라는 은유를 써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4. 대학생 안팔라흐의 죽음

프라하의 봄 이후 날이 갈수록 공산주의 정권의 압제는 강해졌습니다. 1969년 1월에는 당시 까를 대학의 철학과 학생이었던 21세 안팔라흐가 바츨라프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무자비한 소련의 압제에 대항하고자 뜻을 모은 학생들이 1달에 한 번씩 분신자살을 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분신한 안팔라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는데 치료 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소련의 침략에 항거하겠다는 이유보다는, 소련의 침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대다수가 보여준 도덕성의 상실에 항거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다시 한번 체코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낸 그의 용기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뒤, 같은 장소에 두 번째 학생인 얀자이즈가 분신자살을 하고 세 번째로 에브센 플로체크라는 학생이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5.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벨벳혁명

1985년 3월부터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물결이

1989년 동유럽에 이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혁명적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정권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총파업과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바츨라프 광장에 대규모 인원이 광장을 점령하여 시위를 하였고, 전 국가적으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정권이 물러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해 바츨라프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40년간 유지된 공산주의 정권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된 이 혁명적 변화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하여 ‘벨벳혁명’ 혹은 ‘비단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직접 바츨라프 광장에 가보았습니다. 하벨시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바츨라프 광장을 걸으면서 ‘아, 이곳이 바르샤바조약기구 연합군의 탱크에 대항해서 프라하 시민들이 맞서 싸운 곳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어 현재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습니다. 바츨라프 광장 끝 중앙박물관 앞쪽에는 실제로 안팔라흐가 분신 후 쓰러진 장소에 십자가를 새겨 놓았고, 바츨라프 기념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안팔라흐와 얀자이즈를 기리는 석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엔 시들지 않는 꽃들이 항상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현재까지 체코의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고 있단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석판 앞에서 묵념하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랜 식민통치 생활과 공산주의 정권의 탄압, 이에 맞서 저항한 프라하 시민들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좀 더 이 여행이 특별해지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행하실 때 관광지에 얹힌 사연이나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보신다면 분명히 그 여행이 더욱 특별하고 멋진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홈스쿨 어린이들의 대법원 견학

“직접 체험하니 꿈에 더 가까워졌어요!”

“여기가 대법원이야?” “우와 신기하다!” “나 여기 TV에서 봤는데!” 지난 10월 24일, 엄마 손을 붙잡고 대법원 동관 1층에 모인 어린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건물 내부의 고요를 깼다. 호기심에 찬 이들의 눈동자는 건물 내부를 구석구석 살폈다.

취재 최덕철 | 사진 안형진

조슈아홈스쿨 아카데미 소속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10월 24일 대법원을 견학했다. 조슈아홈스쿨 아카데미는 홈스쿨을 하는 부모들의 협력모임으로 홈스쿨을 선택한 가정들이 원활하게 가정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과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자녀문제는 물론 부부문제에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조슈아홈스쿨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홈스쿨 가정은 때때로 함께 모여 명사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음악학습과 운동회, 체험학습 등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견학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눈에 담고, 귀로 익히고

견학의 첫 순서는 법원전시관 관람이었다. 인원 체크와 법원전시관 안내자의 소개 시간을 간단히 가진 뒤 어린이들이 법원전시관으로 입장했다. 어머니들은 그 뒤를 따랐다. 전시관에 들어선 어린이들은 대법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어 보였다.





조슈아홈스쿨 아카데미 어린이들이 대법원의 다양한 공간을 견학하고 모의재판에 참여했다.

법원전시관은 법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들은 전시관 안내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을 구경했다. 안내자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을 설명할 때에는 어머니들까지 집중했다. 법정의 모습을 축소해 만든 모형 앞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 등을 배웠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법복의 역사와 조선시대 민사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을 눈에 담고, 귀로 익혔다.

TV로만 보던 대법정

대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실제 판결이 이뤄지는 대법정을 둘러본다는 소식에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대법정 입구 중앙홀 좌우 벽면에는 역대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 아이들의 표정에 묻어났다. 대법정의 신성함이 어린 마음에도 가 닿은 것일까. 대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장난기 어렸던 어린이들의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하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앉은 대법관석에는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견학을 온 이하경 양은 “TV로만 보던 대법정에 와보니 너무 신기하다. 실제로 재판하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역할 맡아 직접 참여해본 재판

모의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체험실로 이동했다. 어린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 판사와 검사, 피고인,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재판을 직접 체험했다.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은 어린이들이 법복으로 갈아입자 다들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다. 역할을 맡은 어린이들은 재판이 진행될 수록 몰입해 재판의 긴장도를 높였다. 모의재판에 배정된 25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모의재판이 재미있었는지 다음에 오면 꼭 참여해보겠다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온세찬 군은 “모의재판이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온 김해경 어머니는 “아이들이 요즘 역사와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 대법원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너무 잘 온 것 같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던가.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보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만 못 할 것이다. 대법원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표정이 사뭇 밝았다. 전날 비가 내려 하늘의 낮빛도 맑았다. ☺



외래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적잖은 국민들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이견과 의문을 제기한다. 나름대로 타당성과 일리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래어 전반과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가장 큰 오류는 아직도 외래어와 외국어의 의미 구분과 역할·기능을 혼동한 채, 외래어 표기를 외국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잣대로 삼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점이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외래어 표기는 우리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만든 것이지 외국인이나 외국인용 회화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외래어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글 강성곤(KBS아나운서실 방송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분과위원)

이제 세상은 글로벌화되었다. 수많은 경제·사회·문화·IT 분야 신어(新語)들이 명멸한다. 이 용어·개념어들을 일일이 순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대체 가능하면 외래어,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 식의 낱은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가령, 여기 'taxi'라는 단어가 있다 치자. 우리 국민들이 이 대상을 부를 때, 그 'taxi'는 익숙한 한국어식 발음을 탑재할 것이다. "택시!" 이것이 외래어적 쓰임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영미인(英美人)을 위한 친절을 베풀며 "Can I get a taxi for you.?" 했다면 어떨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최대한 영어식 발음의 'taxi'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때의 'taxi'는 외국어적 쓰임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이제 개별 단어가 더 이상 외국어인가, 외래어인가의 원천 속성을 타고 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식 발음은 외래어, 외국인을 위한 쓰임

은 외국어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끼리인 조건에서 외국식 발음을 고집하는 이들은 이 기준에 무지하거나, 그 뜻을 곡해하는 경우가 된다 하겠다. 수년전 '오렌지/어원지' 비극이 바로 이 대목에서 연유한다.

외래어 표기는 원지음(原地音)에 최대한 가깝게 적되, 우리 음운체계와 법칙에 합당해야 한다.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 후자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첫째, 논란이 많은 「f」발음의 경우를 보자. 우리 표기법은 이를 「f」자음 하나로 대응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f」발음을 한글이 못 살리니 새로운 기호로 「f」발음을 대체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ㅎ」이나 「후」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기호 운운은 외래어 표기를 위해 제 나라 자음을 일그러뜨려야 하는 엄청난 부담

은 물론이고 「v」발음도 고려해야 하며, 그 밖의 주요 외국어의 독특한 자음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새 자음에 대한 필요성이 대다수 국민에게 그토록 절실할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긴다. 그것을 새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로울 것인가.

「f」의 「ㅎ」주장은 설득력이 더 약하다. 예컨대 ‘fight’를 ‘파이트’로 적으면 이상하니 ‘화이트’로 하자고 하면 ‘white’는 어떡할 것인가? 무엇보다 「f」가 뒷 음절에 자리하면 치명적 결함을 드러내고 만다. ‘커피’ ‘골프’를 ‘커휴’ ‘골후’로 하란 말인가? 다시 말해, 「f」의 「ㅍ」대응은 경제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복잡성과 무체계성에 우선하는 극명한 예이며, 그것이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파열음과 마찰음 표기 문제다. 라틴계 언어에 있어 특히 무성 파열음 「p t k」는 「ㅍ ㅌ ㅋ」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더 큰 가치, 즉 외래어 표기의 간결성·체계성·규칙성 앞에 놓여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한글로 옮겨야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다. 타갈로그어, 스와힐리어, 플랑드르어까지도 그 대상이다. 그 수많은 언어를 어떤 것은 ‘격음’ 어떤 것은 ‘경음’ 하며 구분해 적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다. 결국 통일해 적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설사 원음(原音)과 좀 멀어진다고 해도 감수하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고심 끝에 격음을 택했고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호찌민’ ‘푸켓’ 등 동남아 국가 언어 가운데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다.) 또한 경음을 인정해버리면 기존에 굳어진 ‘피자’ ‘쿠바’ ‘캥캥춤’ 같은 걸 어떡할 것인가 등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마찰음의 경우도 ‘service(서비스)’ ‘circus(씨커스)’가 현실 발음을 고려할 때 옳다며 쌍시옷이면 깨끗이 해결될 것 같지만, ‘cider(사이다)’

‘soda(소다)’ ‘slump(슬럼프)’ 등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다, 그리 적으면 표기 자체가 사나워져 활자꼴 자체가 거칠어진다. ‘빠쓰’ ‘쨌쓰’ 등이 만연할 때를 상상해보면 감지할 수 있으리라.

끝으로 받침 문제인데, 우리 외래 표기법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받침만을 쓴다. 국어의 말음 법칙(대 표음법칙)과 연관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다만 「ㄷ」 대신 「ㅅ」을 택한 것은 외래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shop’은 ‘숍’에 끌리지만 ‘이’ ‘을’ 등의 조사가 올 때, 딱딱한 발음이 되기에 ‘숍’으로, ‘kick’도 ‘키키(키키)’ ‘키클(키킴)’의 맹점을 알기에 ‘킵’으로 하는 것이다. ‘robot’도 말음법칙에 준한다면 ‘로봇’이나 발음의 현실성·편의성을 존중해 ‘로봇’으로 과감히 선택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말하자면, 외국어와 우리 국어 사이의 가장 원만한 타협이다. 원자음과 국어의 특성, 이 양극단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조화와 절충인 것이다. 이 평형의 시소를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뜨거운 문제를 짚어보고 마무리하련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原音)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같은 한자 문화권의 일본어·중국어 표기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 간결성·체계성·통일성이 관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련 뉴스가 늘다보니 일부 기관·단체명·상호 등의 표기가 생경하고 조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문 규범을 손대는 건 큰 시안적이라는 생각이다. 중국 인명과 지명의 한 국 음(韓國音)화는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난잡한 한자의 범람 문제다. 중국인 이름을 우리 식으로 발음하려면 그 한자를 독음(讀音)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한자 읽기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더구나 중국 인명에 등장하는 한자는 그 범위와 종류가 상상 이상이다. 난잡한 한자들이 우리 눈을 어지럽힐 것이 틀림없다. 그 혼란에 비하면 중국 인명을 소리 나는 대로 중국음에 따라 적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지명도 그렇다. 광둥성의 ‘광저우(廣州)’를 ‘광주’라 하면 경기도 ‘광주(廣州)’의 정체성(正體性)은 난감해진다. 이 땅의 수많은, 주(州)·산(山)·천(川)으로 끝나는 지명은 뭘지 모를 당혹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힐 개연성이 농후하다.

둘째, 글로벌화에 어긋난다. 동양권의 인연을 볼모로 세계화를 멀리 하는 것은 어리석다. 세계인 대다수가 ‘시킨핑’ ‘리커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하는데 우리만 ‘슌근핑’ ‘이극강’ ‘채영문’ 하란 말인가? 중국 인명·지명의 한국음화는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결과다. 한자를 따로 익혀 그들의 이름과 땅을 우리 식으로 읽으면 끝나나? 그것이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 곧 그들의 본이름을 따로 또 기억하는 수고를 더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 인명은 1911년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 인물은 한국음, 이후 인물은 중국음으로 하는 양해 규정을 두었다. ‘공자·맹자’를 ‘공쓰·멍쓰’로 하기엔 뜨악하지 않은가? 신해혁명이 잣대인 이유는 봉건 왕조의 몰락, 중화민국의 탄생을 역사 변환의 큰 물줄기로 본 것이다. 그래서 손문(孫文)이 아니라 쑨원, 원세개(袁世凱)가 아니라 위안스카

이다. 지명은 모호하긴 하지만 아주 익숙한 지명은 중국음을 인정한다. 북경·상해·대만·대북 등이다.

셋째, 일본어와의 형평성 문제다. 한자를 공유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차별하는 것은 우습다. ‘아베 신조’하면 그만 일 인물을 ‘안배진삼(安倍晋三)’으로 편히(?) 발음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의 뜻과 어쩔 수 없이 접하고 그와 가까워지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촌상춘수(村上春樹)’는 누구인가? 매우 유명한 인물이지만, 우린 이제 이 사람을 한국음으로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한국음을 뺐어냈다고 해서 자주성(自主性)이 고양되는 게 아니다. 일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인명을 그저 무심히 독음(讀音)해버리는 게 우리 외래 표기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하다. ‘촌상춘수’라 하지 않고 ‘무라카미 하루키’라 부르는 이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豊臣秀吉),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의 유혹은 그래서 무효하다. 지명의 한국음 표기 주장은 더 옹색하다. ‘찰황(札幌)’ ‘충승(沖繩)’ ‘횡빈(横濱)’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 그저 ‘삿포로’ ‘오키나와’ ‘요코하마’면 족하다. 우리는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명과 지명을 우리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여기도 익숙한 지명은 예외를 둔다. 동경·대마도·북해도 등이다.

외래어를 둘러싼 여러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도 물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지향적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정말 안 된다. 📖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어떻게 취급될까?

글 편집부

Q 망인은 자녀로 甲과 乙을 두었다. 망인으로부터 甲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았고, 乙은 유류분 제도 시행 후에 유증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甲은 乙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이 망인 생전에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특별수익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A 민법 제1112조 이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7. 12. 31. 신설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 또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상속인 간의 공평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

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속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한편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 甲이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 원 상당의 재산은 乙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甲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는 없겠지만, 甲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책자’ 참고하세요!

법원행정처에서는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통고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2012년도에 기제작한 안내 책자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고제도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좋은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 편집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

기존 안내서 수정·보완한 2018 개정판 책자 제작과 배포

2012년도에 제작한 『소년 통고 실무』가 발간된 후 6년이 지났고, 이는 2011년의 통고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최근 통고 현황과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 9. 19. 기제작한 안내 책자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소년 통고 실무』 2018년 개정판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통고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기관 역시 통고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배포되었다.

통고제도란?

소년법상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즉, 통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

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초기에 청소년비행에 개입할 수 있으며, 통고 이후 화해권고절차로 이행이 가능하고, 그 절차 내에서 분쟁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고제도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통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하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각급법원에서는 학교장 연수, 학부모, 경찰, 보육시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에 대한 초청강연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비행 초기 법원 개입으로 낙인 막으며 교정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1차적인 양육과 교육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통고'이다.

통고에 의한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적절히 개입하여 소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통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의 제작·배포를 통하여 통고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이 제도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좋은 대책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고는 어떻게 할까?

통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통고

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메뉴 중 '양식찾기' 메뉴의 '양식명'에 '통고'로 검색 후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고서 양식은 '일반용'과 '학교장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고서 양식

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 소년부 위촉

성명			
직업명			
통고원	☐ 보호소년과의 관계 (□에 √ 표시) 전화번호 (□에 두는 자리)	☐ 사회복지시설의 장 전화번호 (□에 두는 자리)	☐ 학교장 전화번호 (□에 두는 자리)

위 통고원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인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제4조 제3항)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법법정에 계속되는 행위(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법법정에 계속되는 행위(10세 미만)로 불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태(배우)가 있음

☐ 형법법정에 계속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경찰은 유류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흡연하는 상태(배우)가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실(필요할 경우 별지 활용)

(동시, 갈수록 행위의 내용과 양상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
통 고 원 ○ ○ ○ ○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2018 법원전시관 기획전시회 개막

집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등 국민 생활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그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변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 공시 제도가 바로 부동산등기제도다. 2018년, 부동산등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법원전시관은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기획전시를 개최했다.

취재 안형진

부동산등기제도 100년 역사의 기록

지난 10월 5일 법원전시관은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기획전시의 출발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등기 제도는 도입된 후 시대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며 “이번 기획전시가 부동산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마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참석자들은 최현애 학예사의 안내를 받아 전시를 둘러봤다.

참석자들은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된 예전 등기 자료와 사진 자료를 둘러보며 과거를 추억했으며, 부동산등기 신청과 증명서 발급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에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보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시를 관람했다.



지난 10월 5일,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기획전시의 개막식이 열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망라

이번 전시는 전시를 관람하는 국민들이 부동산등기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테마 색상은 적색과 녹색으로, 이는 카드식 등기부를 분류했던 색상(토지등기부는 적색, 건물등기부는 녹색)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부스에는 한국전쟁 당시 총탄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부, 북한군의 메모가 남겨진 등기부 등 역사의 상흔을 담고 있는 자료들과 등기소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부스에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전산화와 전국의 등기소,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 등기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려운 부동산등기제도 용어를 돌림판을 활용해 쉽게 정리한 것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모의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눈에 띈다. 전시 말미에는 맵핑영상기법을 통해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0월 5일부터 관람이 시작된 이번 전시는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평일 9:30~17:30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오후 2시와 4시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 해설도 진행된다.

부동산등기제도의 100년을 돌아보는 이번 전시가 국민과 소통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래를 맞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Interview_ 최현애 학예사

이번 기획전시의 기획 의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재판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우실 텐데요. 재판업무 외에도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등기와 같은 비송업무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사건 중에서 부동산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92.8%로 보통 등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를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등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의미도 담아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점을 두었던 것, 진행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부동산등기제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천만 건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졌을 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에게는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용어와 등기처리과정의 경우 관람객이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글자판이나 인터랙티브 영상을 활용한 체험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등기자료가 전자화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등기부 양식들과 '등기제증' 혹은 '등기필증'으로 불렸던 등기필정보의 변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터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를 다루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소식지

November 2018 |

<http://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ListAction.work?gubun=3>

| NO. 14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10월 5일(금) 법원전시관에서는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라는 주제로 기획전시 개막식이 개최되었고, 새롭게 단장한 기획전시실의 전시를 학예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획전시는 올해로 전국 시행 100주년을 맞은 부동산등기제도를 기념하여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전시되었다.

부동산등기란, 집과 같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 등 권리관계를 장부 즉 문서에 적어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원래는 손으로 일일이 기록하거나 타자기를 이용해서 종이 등기부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모두 전산화되었다. 우리는 전산화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7월 6일부터 가로형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로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시실에서는 부동산등기의 변화과정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등기신청 및 증명서 발급 체험을 해보았는데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등기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순서대로 등록하면서 나만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을 보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어른이 되어 진짜 부동산등기를 발급받아보고 싶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부동산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



철산초 4학년
박소정 어린이기자



세계 역사 속의 법

세계 역사 중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그 국가들은 모두 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아직까지도 유명해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법을 소개하면 이렇다.



〈함무라비 법전의 비문(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우선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는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기본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해결의 열쇠는 잘못된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그가 행한 잘못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운유초 4학년
이주환 어린이기자

그다음으로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라는 법은 귀족들이 왕의 폭정을 막기 위해 1215년에 존 왕이 서명한 것이다. 이는 영국 입헌 군주제의 발판이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사진 출처: 나무위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다. '경국대전'은 신분제도와 같은 조선의 기본 사상을 담고 있었다. 경국대전은 현재의 법처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취재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도 알게 되었고, 법전의 내용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낙엽 길 밟으며 함께 걷고 싶은 그녀

법원 새내기들의 첫 만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5개월, 그야말로 좌충우돌 신참 생활에 눈코 뜰 새 없는 윤유경 실무관은 바쁜 와중에도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가질 줄 안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만추에 <법원사람들> 스타일링룸의 문을 두드린 윤유경 실무관, 그녀와 함께 만추로 접어드는 거리를 함께 걸어본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2일자로 남양주시법원에 첫 발령을 받아, 소액2단독에서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윤유경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법원에 접수되는 남양주시, 구리시 관할 민사소액 전자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들어와서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벌써 어느새 11월이 되다니..., 시간의 빠름을 많이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 새내기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실무관님의 법원에서의 하루를 소개해 주세요.

법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중국된 사건들을 조회합니

다. 그리고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송달해줘야 하는 문건들을 바로 송달해줍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사건과 관련된 문의전화도 받습니다.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는 전자사건이다 보니 신건이 접수되면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 꽤 생깁니다.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서가 제출되면 소장 송달을 해요. 그 외 반송문건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감정신청이 들어오면 감정도 알아보고 항소 들어온 사건을 상소심에 보내고요. 하하, 아직 신규라서 배울 게 많아서 그런지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직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일하며 보람되고 긍지를 갖게 된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재판부에 들어와서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벌써 어느새 11월이 되다니..., 시간의 빠름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윤유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실무관



사건이 접수되면 보정할 사항 검토 후, 보정할 것이 없다면 소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소장이 한 번에 바로 피고 측에 송달이 되면 좋지만, 불능이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보정을 내리고 절차에 따라 어떻게 송달을 할지 나뉘는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피고에게 소장이 잘 도달되면 그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재판이 잘 진행되고, 종국, 확정, 나아가 보존까지 마무리되어 미제사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웃음)

바쁜 와중에도 요즘 실무관님 생활에 활력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점심시간에 밥조끼리 같이 식사를 하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업무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얘기

들도 나누는데요. 요즘엔 제가 ‘스타일링룸’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와 관련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저보고 회사(남양주)에서 집(서울)까지 걸어가면서 운동하는 걸 권한 선배님도 계셨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실천해본 적은 없지않요. 하하. 그리고 하루에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관련 얘기라든가, 남양주의 맛집은 어디이며 주변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언제 완공되며 어떤 모습일까 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내는 점심시간은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법원은 작은 규모여서 동호회나 특별활동이 없지만 우쿨렐레나 기타동호회 등이 생긴다면 들고 싶어요. 법원에 들어오기 전에 큰마음 먹고 우쿨렐레를 사놓았는데 제 방에서 몇 개월째 장식품으로 놓여 있네요. 신청곡을 받아 바로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열심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실무관님만의 업무 피로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휴식을 즐기거나, 재미있는 예능을 보면서 풀기도 하고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기분 전환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쇼핑하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급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인이 되면서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짬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면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활력이 생기고 정말 힘이 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일에는 체력 충전을 위해 집에 가자마자 좋아하는 노래만 틀어놓고 바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 더 적응이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발령 전에 태국여행에서 도자기 빚는 체험을 처음 했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물이 마치 구석기시대 유물처럼 만들어져 다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주변 분들께 선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자신의 성격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인상이 조용해 보인다고, 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랑 친한 동기들은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언니가 조용하냐고. (웃음) 저도 저 스스로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친해지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하, 저는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활동적인 편이에요.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법원에 들어오기 전 호주 여행에서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와 스카이다이빙도 해봤어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공포영화인 걸 보면 도전적이거나 모험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특기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약 3만 보 정도를 걸은 것 같은데, 요즘엔 시간이 부족해서 자주 못 걷고 있어요.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은 무엇이며 출근복으로는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시나요?

평소에는 원피스를 즐겨 입어요. 위아래 잘 맞춰 입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원피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컬러는 파스텔톤이나 인디핑크색이 얼굴톤과 잘 어울리기도 해서 좋아하고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조금 과감하게 입기도 해요.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등을 좋아해서 액세서리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출근할 때는 조금 자제하죠. 지난여름 출근할 때는 주로 블라우스에 치마를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니트에 재킷, 카디건에 바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업무상 출근복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이 있는 날에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 차 새내기다 보니 틈이 날 때마다 무난한 분위기의 옷들을 구매하며 출근복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시나요?

형제자매 없이 외동딸이에요. 어릴 적부터 혼자 자라다 보니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었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때로 외로울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엄격한 편이 아니고 친구처럼 다정다감하신 편이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얼마 전 제가 법원에 들어와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께 받기만 했는데 제힘으로 효도한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한 가족이 된 9살짜리 말티즈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가 9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중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조금씩 걱정돼요. 게다가 얼마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주말이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 가는 것도 제겐 큰 즐거움이예요. 정이 듬뿍 들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진배없죠.



“스타일링룸에 참여하기로 하긴 했지만, 촬영 전날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법원 생활에서 앞으로의 목표와 바람과 함께 이번 ‘스타일링룸’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법원 생활 5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렵거나 생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사무관님, 계장님, 선배님, 동기, 후배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데요. 저도 제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적응을 하고 싶습니다. 스타일링룸에 참여하기로 하긴 했지만 촬영 전날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니까 색다른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하시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야외에서 촬영을 도와 주신 담당자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법원사람들> 책 한 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또 이런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계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법원 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타일링
Tip

패션스타일 포인트

오버사이즈핏 트렌치로 완성하는 가을 패션!

트렌치룩은 가을의 전형적인 아우터로 플라워프린트 원피스와 카멜 컬러 니트 조끼를 코디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고 오버사이즈핏의 트렌치를 함께 함으로써 가을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스타일링하였습니다. 정장룩은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체크무늬의 바지수트로 세련되면서 도회적인 느낌의 오피스룩을 연출하였습니다. 캐주얼룩은 유니크한 모양의 터틀넥 티셔츠와 스키니진을 함께 매치하여 무난한 듯 개성 있는 스타일로 보여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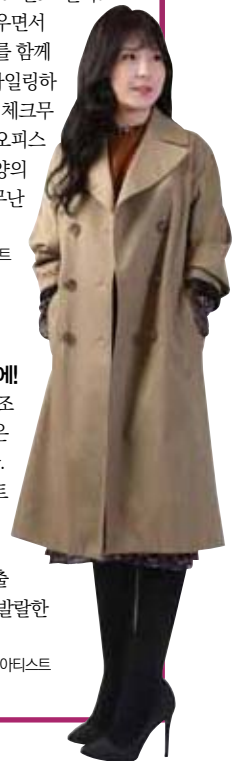
—권연화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포인트

굵은 웨이브로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한 번에!

아이메이크업에서는 아이라인을 끝쪽에 더 강조하여 눈매가 시원해 보이도록 연출하였고 굵은 웨이브로 가을룩의 느낌을 한층 더 살렸습니다. 정장룩에는 매트한 레드오렌지 립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피부가 더 밝고 화사해 보이도록 표현하며 도시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캐주얼룩에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는 스타일로 연출하고 핑크립을 글로시하고 도톰하게 발라주어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이해리 뷰티아티스트





세상을 흔드는 변화의 물결, 4차 산업혁명 그 실체를 말하다

공학 박사 **강명구**
연세대학교 바이오-IT 마이크로 펍 센터 연구교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회 각 분야의 뜨거운 이슈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이 AI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블록체인이라고 말한다. 마치 잃은 무성하데 그 안의 줄기는 보이지 않는 모호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 그 실체는 무엇일까?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책 발간과 함께 활발한 강연 활동을 벌이며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일컬여지고 있는 강명구 박사를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강명구/키출판사)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효율화를 추구하며 획일화, 중앙 집중, 폐쇄성을 특징으로 만들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맞춤, 분권, 개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구조에 대한 반발이자 새로운 요구로 인한 것입니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 내재된 기술만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VR, 3D프린팅 등을 일컫지

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획일화, 중앙 집중, 폐쇄성의 특징을 갖는 분야에 적용된다면 지나간 산업혁명의 기술일 뿐입니다. 특정한 기술이 쓰인다고 4차 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찍어내는 듯 획일화된 대량생산품 대신 나에게 맞춰진 제품, 서비스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기업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 즉, 가격 증가 없이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품

중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진 방향 중 '맞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분권'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PC, 인터넷,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중앙 집중적 플랫폼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 알아서 관리해주는 기존의 은행, 회사 경영 구조가 그렇듯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서 관리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 회사(구글이나 페이스북, 우버, 우아한 형제 등)들도 모두 이러한 중앙 집중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사회 조직 역시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를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구조입니다. 소수가 전체를 관장하는 형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였죠. 그러나 기존의 중앙 집중적 구조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권력 혹은 데이터 등이 집중되어 있는 소수가 일탈할 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견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Sub Prime Mortgage)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으로 꼽혀온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파산하였고, 관련된 많은 금융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잘못 만든 파생상품으로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미국 정부는 그걸 메우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부어 경제가 악화되고 글로벌 위기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유발시킨 장본인들은 고액의 퇴직금을 챙기며 여전히 건재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99%의 우리가 1%의 소수에게 이익을 독식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미국 뉴욕 '아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¹⁾을 일으켰고 아큐파이 유니버시티, 아큐파이 HQ 등으로 전 세계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분권'에 대한 요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조상 분권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요? 시스템 기반이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가상화폐와 함께 이슈를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바로 이 '분권'을 구현할 수 있게 한 거대한 거버넌스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망망 신뢰할 수 없는 기존의 금융독점 시스템에 대항해 중앙 조직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가 제안한 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는데 블록에 담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합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먹고 은행 거래를 해킹한다면 기존에는 중앙 금융기관의 금고를 공략하면 됐지만 블록체인은 각각 체인으로 연결·연동된 거래자들의 장부를 모두 조작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체인에 연결된 노드가 많아지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내용을 볼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블록체인의 연결망이 확대되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문서 위변조 방지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방안이 또 필요했습니다. 사토시는 체인을 만들고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지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비탈릭 부테린은 17살 때 사토시의 블록체인을 접하고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 체인으로 연결된 모든 참여자에게 권력이 분산되고 함께 기여하며 이익을 나눠 갖는 이런 방식은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부테린 이후 블록체인은

1) 2011년 9월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리고서도 엄청난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경영자들에게 분노해 뉴욕에서 일어난 시위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당시의 구호였다.



에너지, 운송,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당시 금융 분야의 독점적 체제의 문제점은 인식했지만 이를 대신할 마땅한 시스템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면 이제는 이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분권과 공유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중앙 집중식 금융시스템(좌)과 블록체인(우) 비교
(@키출판사 www.keymedia.co.kr)

4차 산업혁명에서 '개방'은 어떤 흐름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요?
 획일화에서 개별화, 맞춤화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소수에 의한 독점적, 폐쇄적 구조로

“이제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분권과 공유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는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빅브라더²⁾ 아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피라미드식 사회 구조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연결을 막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독점한 기업이나 기관, 조직은 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폐쇄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삼성, LG 등 각 브랜드 별로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켜야 하고, 센서 인식을 각 제품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각각 나서서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업체들을 모으고 베리미 컨소시움 등을 통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고 표준을 만들어 각 업계와 기업은 이를 따라하여 서로 공유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반 기술 범주
(@키출판사 www.keymedia.co.kr)

²⁾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빅브라더를 따서 만든 용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뜻하며, 부정적 의미로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품 간, 개인 간 연결이 촉진되며 이를 통해 개별화, 맞춤화가 가능해 집니다. 블록체인 같은 공유 시스템이 현재 개발되어 있고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술적 기반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팅, 로봇, 센서, 반도체 칩과 같은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한 몸처럼 연결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하나의 사회변화로서 맞춤, 분권, 개방을 지향하며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우선 기억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 분야 전문가 육성에 치중한다거나 문제가 된다고 ICO를 폐지하는 등의 단기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에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기자 대신 뉴스 기사를 쓰고 판사 대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로 계산하던 것을 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 그것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으로 판례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하는 일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그려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처럼 살고자 하는 관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는 마차가 주요 운송수

단이던 시절이었지만,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한 후 거리에는 마차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무시했던 말 사육업자들은 변화의 와중에도 말사육을 확대했고 1920년도 시점에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동차가 교통과 운송을 장악하여 말을 필요로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많은 말 사육업자가 도산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변화의 트렌드가 생겼을 때 관성을 버리고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요즘 표준 관련 최고위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표준과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최근 하나씩 수입되는 직구 제품의 인증이 문제가 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대될 개개인 맞춤형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일로 많은 토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시급히 고민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처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출발단계로서 미래를 그려보고 보다 많은 분들과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인더스트리 4.0’³⁾으로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 독일과 협업의 기회가 생기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배경과 의미, 이를 통한 방향성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확장시키기 위해 현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며 이를 정리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에 활용할 하드웨어 부분의 기술 역량이 있고 (이것은 독일에겐 없기 때문에 당시 독일이 저희와 협업을 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대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는 책도 냈고 열심히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공유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3) 독일 연방정부가 2011년 독일의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제시한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의 기원이다. 독일 정부는 2012년 10월에 ‘인더스트리 4.0’ 1차 초안을 발표하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겨울잠, 건강하게 자는 법

겨울철에는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난방 때문에 코가 마르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증가하고, 해가 짧아지면서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급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겨울철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을까?

글 한진규(서울수면센터 원장)



가슴기와 젖은 수건 등으로 실내 습도 조절

좋은 수면은 잠자리에 누운 지 20분 이내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아야 한다. 잠이 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잠이 들어도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경우, 새벽에 잠을 깨 더는 잠들 수 없는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면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추운 겨울에는 실내 난방까지 하면서 건조해지고, 코가 마르면서 코 호흡보다 구강 호흡을 많이 하게 된다. 구강 호흡은 입을 마르게 하는데, 산소포화도(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잠을 자다가 자주 깨는 잦은 각성 증상과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때문에 실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가슴기와 젖은 수건 등으로 습도를 조절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숙면과 햇빛의 밀접한 상관관계

겨울철 숙면을 취하려면 오전 빛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햇빛(2,000LUX) 이상의 빛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뇌는 아침으로 인식하면서 각성호르몬을 분비하여 잠에서 깨게 만든다. 이후 15시간 이후에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즉 아침에 빛에 노

출되지 않으면 야간에 잠자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입면과 숙면이 어려워진다. 본인이 자고 싶은 시간 15시간 전에 햇빛 보는 것을 일상화 하면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야간 빛에 약하다. 야간에 강한 빛에 노출하게 되면 각성호르몬이 분비되고 멜라토닌 분비는 줄어든다. TV,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뇌는 햇빛으로 인식한다. 야간에는 사용량을 줄이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멀리서 사용하고 필터를 이용해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한 수면 방해

햇빛은 하지불안증후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줄어든 일조량과 추운 날씨가 도파민 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더 심해진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쭈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

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불안증후군이 하지정맥류 등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쉽고, 다른 수면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재제(再製)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일조량과 관계가 깊다.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한 뒤 다리 마사지나 족탕으로 다리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것이 하지불안증후군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해지면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른 검사, 치료가 중요하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일상 습관들

족욕과 반신욕은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주고, 땀을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 목욕이 끝난 후에는 체온이 떨어지게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 족욕과 반신욕은 잠자기 2~3시간 전에 하면 입면과 숙면에 좋다.

술은 수면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술을 먹으면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지만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자주 깨고, 깊은 잠 단계는 오히려 떨어져, 결국 숙면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녹차나 커피 등 카페인 음료도 오후에는 삼가야 한다. 카페인 성분의 영향이 약 10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 있는 우유나 바나나, 상추, 호박 등을 섭취하거나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졸음을 유발하는 동글레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면증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면 환경과 수면위생을 지켜도 불면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불면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원인별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



6가지 숙면의 법칙

하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밤을 맞자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본 뒤 15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이 뇌에서 분비되어 잠이 오게 된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흥분과 각성을 자극하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졸리지 않게 만들고, 해가 저서 어둡어지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나와 서서히 졸리게 된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나는 것은 밤을 일찍, 조용히 맞이할 수 있는 숙면의 지름길이다.

둘, 낮에 충분한 햇빛을 온몸 가득 받자

낮에 충분히 햇빛을 보면 밤에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쉽게 잠이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햇빛은 수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빛과 그 에너지는 눈의 망막에 있는 1억 개 이상의 광수용체와 시신경을 통해 시각중추, 송과선, 시상하부로 전달되며 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들 수 있다. 낮 동안의 빛은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상승시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셋, 야간 운동은 절대 금물

운동 자체는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고 긴장감도 떨어뜨려 주어서 잠자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잠자기 5~6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마쳐야 한다. 운동 중에는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고 더불어 각성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한다. 그러나 코티솔이 감소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밤늦게 하는 운동은 결과적으로 잠드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므로 운동은 되도록 낮에 하는 것이 좋다.

넷, 무리하게 자려고 노력하지 말라

잠은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달아난다. 잠을 자려는 모든 행동은 각성 호르몬인 코티솔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 침대에 누워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뇌는 침대를 놀이터로 착각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잠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침대에 누워서 뒹굴지 말고 과감히 방에서 나와 소파나 의자에 앉아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에 가서 눕도록 한다.

다섯, 자기 전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자

너무 생각이 많거나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은 그 자체가 각성 호르몬인 코티솔을 자극하게 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일이므로, 잠자기 딱 3시간 전까지만 걱정거리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는 깨끗이 잊자.

여섯, 잠이 오기 쉬운 몸을 만들자

체온이 내려가면 졸음이 찾아온다. 잠들기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체온을 내려주면 잠이 잘 들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반신욕이나 족욕은 체온을 올려주고 근육 이완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므로 잠자기 2시간 전에 이를 실행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왕성하게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반신욕을 해서 올라간 중심 체온은 2시간 뒤에나 떨어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때문에 취침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한다.



삶에 향기를 더하는 차 생활 예찬 차와 찻그릇 이야기

세계 3대 음료 중 하나이자,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차(茶)'. 따뜻한 차의 온기는 손끝을 따라 전신으로 퍼지며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한다. 선인들은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이면 차와 함께 삶의 여유를 즐겼고 많은 문인 묵객들은 차에 관한 기록을 남기며 차를 예찬했다. 알고 마시면 더 그윽한 차의 세계로 우리도 빠져보자.

글 · 사진 신수길(차문화 공예평론가)

생산지역, 채취시기, 제조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

차의 역사는 BC 2700년경 중국 삼황시대의 신농황제로부터 비롯된다. 처음에는 약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의식이나 제사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호음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에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대렴공이 당나라에서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김수로 왕비인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48년에 차 씨를 가져와 전파했다는 기록도 있다.

차는 식물학적으로 동백과의 차나무(Camellia Sinensis) 잎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차(茶)이고, 이외 인삼차, 대추차, 커피, 보리차 등은 모두 대용차라고 한다. 차는 생산하는 지역과 찻잎을 채취하는 시기,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정해진다.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차의 분류기준은 발효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6가지로 구분하며 이를 '6대 차류'라고 한다. 잠시 살펴보면, 비 발효차인 녹차(綠茶), 전혀 열을 가하지 않고 위조(찻잎 시들기)하며 완성하는 백차(白茶), 약 15~25%의 발효상태에서 완성하는 황차(黃茶), 발효정도가 약 20~70% 사이로 만들어진 청차(靑茶), 완전 발효차인 홍차(紅茶), 후 발효차인 흑차(黑茶) 등이 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보이차는 후 발효차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는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곡우 전)차, 첫물 차, 두물 차 등으로 분류하고, 제다방법(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발효 정도를 중심으로 비 발효차(녹차), 반 발효차(황차), 발효차(홍차) 등으로 분류한다.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찻그릇

차를 마시고, 우려내고, 담는데 필요한 그릇들을 찻그릇 또는 다기(茶器)라고 한다. 찻그릇을 포함해 찻자리에 비치된 기물들과 차실을 장식하는 가구 등을 다구(茶具)라고 하고, 찻그릇과 다구를 포함해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갈무리하는데 쓰이는 모든 기물이나 도구를 차도구라 한다. 찻그릇에는 찻사발, 다관, 찻잔, 탕관, 나눔그릇, 버림그릇 등이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도자기로 되어 있다. 다구는 다관, 차탁, 찻상, 찻장, 차화로, 다반 등으로 나무 또는 기타 재료로 되어 있다. 통틀어 차도구라 이르기도 하지만 세분해서 부르는 것이 명확하다.

찻그릇은 잎차그릇과 가루차(抹茶)그릇으로 나누어진다. 잎차그릇에는 찻잎을 우려는 다관(茶罐), 우린차를 따르는 숙우와 찻잔, 더운 물을 식히는 식힘그릇, 버림그릇, 뚜껑받침 등이 있고, 가루차그릇에는 가루차와 물을 넣고

저어 마시는 찻사발(茶碗), 가루차와 물을 휘젓는 차선, 차시, 찻통, 다식그릇 등이 있다.

우리가 차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다구(茶具)들을 준비해야 한다. 차인들은 찻잔이 아닌 잔에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차가 일반 기호음료와 달리 상당 부분 정신적 의미도 차지하기 때문이다. 찻자리에 앉아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것과 일반 의자에 앉아 종이컵으로 차를 마셔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차 생활은 도예, 목공예, 금속공예 등 기물을 쓰면서 공예문화의 이해와 미적 안목을 높여 주고, 찻자리의 분위기를 도와주는 가락, 춤, 시(詩), 서(書), 화(畵)등을 통해 예술적 감상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에 종합적 실천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찻그릇에 담긴 예술성과 기능성

일본의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는 “도자기의 꽃은 다완(찻사발)이고, 다완의 왕좌는 이도(井戸:찻사발 이름).”라고 했다. 이처럼 찻사발은 도자기의 결정체이다. 찻사발이 만들기 어려운 것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기교를 부릴 수가 없다. 하지만 거기엔 격이 있어야 하고 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밥사발이나 국그릇처럼 일반적인 생활용기일 뿐이다.

일본이 국보(제26호)로 지정한 기자에몬 이도(喜左衛門井戸)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15세기에 만든 것이다. 당시 일본은 도자기를 만들 줄 몰랐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릇은 모두 가져가 그들의 감식안으로 골라 쓰며 자료를 남겼다.

우리의 차문화는 승가에서 명맥을 이어왔으나 차도구문화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 1950년대 말 효당 최범술 선생이 도예가 김중희 선생에게 부탁해 만들기 시작했고, 65년경에 완전한 다관이 나왔다. 이후 차와 함께 198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며 오늘에 이른다.

다관은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기능성 또한 중요하다. 물을 잘 따를 수 있는 3수(출수, 절수, 금수)와 쓰임이 편리한 3평(물대 끝, 손잡이 끝, 구연부의 높이)이 잘 맞아야 한다. 이를 3수3평이라 한다. 다관은 손잡이가 몸통에 붙는 형태에 따라 뒷손잡이 다관, 뒷손잡이 다관, 옆손잡이 다관으로 부른다.

우리가 많이 쓰는 중국의 다호(茶壺)는 명나라 정덕연간(正德年間,

1506-1521)에서부터다. 강소성 의흥현 정축진 금사사에 한 스님이 처음 만들기 시작해 공춘으로 전수 되었고, 뒤를 이어 동한, 시봉, 시대빈 등을 거치며 오늘날의 의흥 자사호에 이른다.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요즘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차를 마시며 찻그릇을 쓰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아직 차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가(餘暇)와 취미생활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차 생활이라 하여 어렵거나 번거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 생활은 두 팔을 벌릴만한 작은 공간과 차를 우리고 마실 수 있는 찻그릇(茶器) 한 벌이면 족하다. 차 생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색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지혜를 주며 삶의 향기를 더해 준다. ☺



(위, 아래)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룬 열꽃편신체 찻사발, 다관의 3평(물대, 손잡이의 끝, 구연부가 수평을 이루는 것).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제37회 정기총회 참석 및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도서관 간의 법률도서관증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이 매년 빈 대학교 법학도서관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자료를 기증하고, 법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이들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법률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서관 허부열 관장은 “금번 해외가점도서관 협약 체결 및 주요 기관 및 도서관 방문으로, 외국의 법률도서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를 적극 소개하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람들 원고모집

법원가족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장생활, 업무 속 에피소드를 담은 '나의 일 나의 삶' 코너와 취미, 여가, 생활 등으로 생활 속 이야기를 담은 '테마가 있는 글'에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이상
- 원고 마감: 수시 • 보내실 곳: 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courtkorea/>

지난 호 퀴즈당첨자

류소현 행정관 법원도서관
심영은 실무관 고양등기소
윤영지 실무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은주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임이택 실무관 영덕지원

지난 호 퀴즈정답



다른 그림 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표시한 후 사진을 스캔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법원사람들@scourt.go.kr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양대로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

이런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주부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왠지 주눅이 들고 꺼려지는 곳인데 전세세입자로 인해 제3채무자가 되어 법원 공탁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법률용어 추심, 공탁, 가압류 등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말들일 정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찾아갔을 땐 기분도 나쁘고 '공탁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안산지원 공탁실 8번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책상 위에 공탁 업무 책자까지 찾아가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분이 계시나 할 정도로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저도 배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가 알고 있는 걸 묻는다면 저도 8번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무원 처음 봤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옆에서 누군가 말한 대로 법무사사무실로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법원에 갔었는데 훈훈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2018. 8. 21. 박○○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국민과 함께

피고인에게 열린 단 한번의 기회,

국민참여재판

증거는 꼼꼼하게 살피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배심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A.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모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참여재판 제대로 알기!

❶ 피고인이 신청

국민들 앞에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❷ 다양하게 구성된 배심원

각계각층의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공정하게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 평의 및 재판부와 함께 양형을
토의합니다.

❸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정

일반 국민 중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❹ 이해하기 쉬운 재판과정

피고인, 배심원 등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